

전기차 캐즘·친환경 바람타고 하이브리드차 ‘힐힐’

1~10월 하이브리드차 31만2000대 등록...역대 최대 기록 전망 LPG차, 누적 등록 3위...경유차, 판매 급감하며 전기차에도 밀려

친환경차 선호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올해 국내 시장의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LPG(액화석유가스)차도 판매가 급감한 경유차를 제치고 연간 연료별 등록 대수 3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8일 시장조사기관 카이즈데이터연구소의 연료별 국내 신차(승용·상용 포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8% 증가한 31만 1769대로 집계됐다. 휘발유차(65만471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 대수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인 30만 9164대를 넘는 수치로,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많이 팔린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하이브리드차는 23.0%에 달해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2017년 8만 4684대에 불과했던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0만 4112대로 처음으로 10만대를 넘더니 3년 만인 2022년 21만 1304대로 '20만대 고지'도 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1년 새 10만대 가까이 증가해 30만 9164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주목받던 전기차가 인프라 부족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지역 하이브리드 등록 차량도 지난해 말 3만 9965대에서 올 10월말 기준 4만 9265대로 크게 늘었다.

내연기관차를 중시하는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여파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전기차 캐즘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하이브리드차

강세 현상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LPG차도 선전이 예상된다.

올해 1~10월 LPG차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 7314대로,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3위에 올라가 있다.

이는 전기차(12만 2672대), 경유차(12만 1306대)를 모두 앞지른 수치로, LPG차도 올해 역대 최다 등록 대수를 기록하며 연간 연료별 등록 대수 3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반면 2022년까지 휘발유차에 이어 연료별 등록 대수 2위를 놓치지 않았던 경유차는 올해 작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절반 이상 급감하며 전기차에도 밀리는 수모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30만 8708대가 등록됐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15만 8000대 남짓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선호와 전기차 캐즘이라는 두 가지 역설적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경유차의 시장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기아 K8 하이브리드.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TCR’, TCR 월드투어 2년 연속 우승

아반떼 N TCR 에디션도 공개

현대차가 18일 “투어링카 대회인 ‘2024 TCR 월드투어’에서 ‘더 뉴 엘란트라 N TCR’ (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는 지난 14~17일(현지시간) 마카오 기아 서킷에서 진행된 2024 TCR 월드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49포인트를 획득하며 2024시즌 최종 323포인트로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에 올랐다. 그는 TCR 월드투어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드라이버 부문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미첼 아즈코나 선수도 최종 295포인트를 기록하며 드라이버 부문 3위를 시즌을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2022년 종료된 ‘월드 투어링카 컵’(WTCR) 우승에 이어 새롭게 시작된 TCR 월드투어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TCR 시리즈는 대륙과 국가별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대회 수가 40개에 달한다.

이중 최상위 대회인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할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대회로, 전 세계에서 열리는 TCR 대회 중 주요 레이싱을 선별해 경기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로 순위를 결정한다. 현

대차는 TCR 월드투어와 함께 동시에 마카오에서 진행된 ‘2024 TCR 차이나’ 및 ‘2024 TCR 아시아’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서도 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확정지었다.

TCR 차이나에서는 ‘현대 N’ 팀의 마틴 카오 선수가, TCR 아시아 시리즈는 장첸둥 선수가 드라이버 부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현대차는 이들 3개 시리즈에 출전한 32대 차량 중 가장 많은 12개의 더 뉴 엘란트라 N TCR을 대회에 참가시켰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모터스포츠에서 얻은 노하우를 반영한 ‘아반떼 N TCR 에디션’을 공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윈터크래프트 WP52 EV

금호타이어가 18일 “전기차 전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 (사진)로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제품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iF,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윈터크래프트 WP52 EV는 기존의 겨울용 타이어를 개조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3D 블록 설계 기술로 눈길 제동력을 극대화했고 흡음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타이어 옆면에는 눈이 내리는 풍경과 눈꽃 결정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핵심 미래 기술을 연구·개발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에 고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사과·버섯으로 만든 ‘EV3 스테디카’ 공개

차량 소재서 친환경 실천

기아가 18일 버려진 자원과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실용 모델 ‘EV3 스테디카’를 공개했다.

〈사진〉

기아는 총 22가지 재활용·천연소재 기술을 개발해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의 부품 69개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껍질로 만든 ‘애플 스킨’이 스티어링 휠과 콘솔에 적용됐고 버섯 재배 후 버려지는 부산물인 폐배지가 무선 충전 패드에 사용됐다.

차량 외관의 루프, 가니시(장식)에는 천연 섬유와 바이오 폴리머로 구성된 복합재 제조 기술이 쓰였다.



범퍼, 도어 트림, 프렁크(차량 앞쪽의 트렁크 공간) 등은 폐차에서 회수된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기아 관계자는 “EV3 스테디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이라며 “차량 주요 소재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저탄소·재활용 소재 기술을 지속해 확대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사업장의 재생 에너지 전환, 차량 내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확대, 국내 갯벌 복원 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견3사 실적 ‘신차’로 희비 엇갈렸다

올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인기

한국GM과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내 중견 완성차업체들의 국내 실적 희비가 신차 1종에 따라 갈리는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중견 3사의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르노코리아 5337대, KG모빌리티(KGM) 4473대, 한국GM(쉐보레) 1898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2.2% 급증했다. 1~10월 국내 누적 등록 대수는 KGM 4만 1004대, 르노코리아 2만 2115대, 한국GM 2만 1099대로 집계됐다. 르노코리아는 올 들어 처음으로 한국GM을 앞질렀다. 지난해 국내 등록 대수가 KGM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중견

3사 중 가장 부진했던 르노코리아는 올해는 ‘짤짜’를 면할 전망이다.

르노 코리아의 내수 실적을 끌어올린 주역은 지난 9월 출시된 하이브리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다.

그랑 콜레오스는 지난달에는 내수 등록 대수 1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8월 1411대에 불과했던 르노코리아의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10월 5337대로 크게 증가했다.

신차 1종이 중견 3사의 실적을 결정짓는 양상은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 두 달 만에 6500대가 팔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국GM은 지난해 중견 3사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2022년에는 KGM의 중형 SUV 토레스가 같은 역할을 맡았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